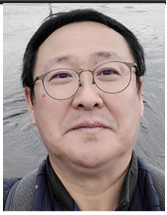


영화 '다음소희'를 봐야 하는 이유

교육의향

조재호
무등초 교사



이 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영화 '다음 소희'(감독 정주리)를 영화관에 가서 보시라는 것입니다. 팟캐스트 <매블쇼>에 출연하는 <최광희>, <라이너>, <거의 없다>와 같은 훌륭한 영화 평론가분들은 영화적으로 완성도 높은 이런 작품을 봐 주어야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했습니다. "재벌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를 봐야함"(거의 없다), "노동자들의 삶을 훌륭한 영상으로 담아낸 거장, 칸로치가 한국에 나타남"(라이너), "무엇이 중한디. 영화 손익분기점 30만 관객이 들지 않으면, 프로그램 출연을 중단하겠다"(최광희). 교사노조들도 영화를 함께 관람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가수 아이유도 SNS에 영화 감상을 공유했습니다. 나도 그분들처럼 멋진 영화를 같이 보자고 제안합니다.

지난 주 학교에 출근해 새 학기 준비를 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A 선생님이 지난 해 가장 행복했던 것을 적는데 "춤"이라고 쓰셨어요. 아빠와 단 둘이 사는 아이를 담임으로 맡았는데, 선생님 앞에서 쉬는 시간에 춤 비슷한 몸짓을 시작했대요. 선생님은 그 모습이 귀엽기도 했지만 안쓰러우셨대요. 엄마 사랑이 부족해서 내게 저런 표현을 하나 싶으셨대요. 아이는 1년 내내 그렇게 춤을 쳤고, '이제 그만해'라고 해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런

데 반 아이들이 따라 하기 시작했고, 1년 내내 그렇게 웃으며 생활했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소희』 첫 장면은 밝고 건강한 소희가 힘든 합춤 동작을 열심히 연습하고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영화가 단순히 어떤 불합리한 노동관행이나 교육문제를 고발하는 차원에 있지 않고 '춤추기'를 멈춘 바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는 모두 '소희'였습니다. 몸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감정을 분명하게 분출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언제부터가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춤추기'를 그만둔 딱딱한 어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콜센터 실습생의 노동조건과 교사의 그것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영화를 보면서 초등교사로 첫 발령 받았던 학교 기억에 저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애완동물관리학과를 다니는 소희가 '대기업'에 실습생으로 "사무직 여직원"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장면에선 나도 그 어려운 임용고시에 합격해 발령받았다고 뿌듯해했었던 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관련 없는 듯 한 일들을 누구의 설명도 듣지 못하고 감당해야 하는 소희처럼 나도 교육대학에서 배운 것들과 임용고시를 통해 암기한 지식과는 무관한 업무들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마침 그해에는 '열린교육'이 유행이어서 교실간의 벽이 없었습니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어 법제화된 학교폭력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업무를 내가 맡아야만 했습니다.

다. 공문들이 배달(?)되어 하얗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6학년 서른 명이 넘는 아이들이 나를 말뚱말뚱 쳐다보는데, 나는 숨이 막히고 견딜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말도 하지 않는 자폐성향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와 마주보며 교실에서 급식(그때는 급식실이 없었어요)을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군요. '너도 나처럼 답답하구나. 그래서 친구도 없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않고 보내는구나'. 정말 비참했던 일은 늦은 나이(36살)에 임용이 된 나에게 노부모가 "힘내라, 널 믿는다"고 응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그날 이후로도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느낌을 마비시키고 적당히 버티는 비법을 터득한 듯합니다. 다만 춤추는 법은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표현하기 보다는 감추고 억압하기 위해 노력하여 성격깡웃이 두텁게 형성되어 버렸습니다.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 속 형사이자 어른인 유진(배두나역)은 『다음 소희』들에게 말합니다. "옥해도 돼. 괜찮아. 내게 꼭 이야기 줘" 라고. 저도 그 메시지를 잊지 않고 올해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네 느낌과 감정이 소중한 것이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춤추기,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멈추지 말자"고.

영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영화 평론가 <거의없다>는 말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콜센터 직원에게 화를 내러다가 잠시 멈추고, 힘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배려만 해도, 우린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社說

공공기관 혁신, 활력·효율 계기 만들어야

광주시, 구조 혁신안 발표

광주시가 시산하 공공기관 8곳을 통합하고, 3곳의 기능을 강화하는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익숙한 것과 결별'과 함께 관행이 주는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강기정 광주시장의 생각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길을 찾는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내놓은 혁신안은 효율과 자율, 책임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유사·중복 기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재편하고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기존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광주관광공사로 통합하고 광주테크노파크와 과학기술진흥원을 광주테크노파크로 통합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은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으로,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

원은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으로 통합된다. 도시철도공사와 국제기후환경센터, 평생교육진흥원 등은 기능이 강화된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광주시 공공기관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줄어든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인력 운용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다. 민선 3기 11곳이던 광주시 공공기관은 민선 7기인 현재 24곳으로 늘어났다. 재단·사단법인까지 합하면 30곳이 넘는다. 최근 행정안전부 조사에서도 최소 조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9곳에 달했고, 업무 중복 기관이 여러 곳인 것으로 지적됐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공공 서비스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의 활력을 살리는 동시에 비효율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효율과 혁신을 이유로 일방적인 구조조정도 없어야 한다.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광주시의회의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의 요체는 활력과 효율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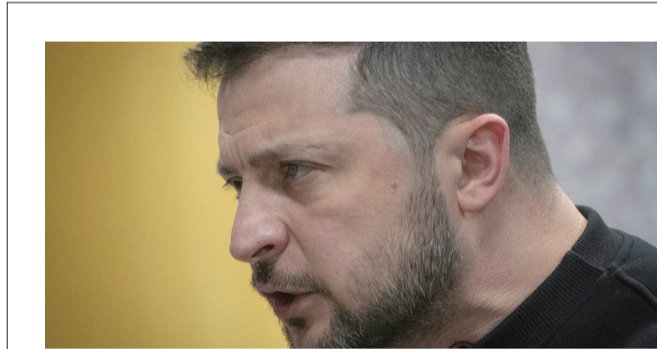
여수 물고기 폐사, 어민 피해 최소화해야

전기료 폭탄에 저수은 피해 41억

여수 해상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 123만 마리가 집단 폐사해 관계기관이 원인 파악에 나섰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역 해상의 가두리 양식장 20여개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폐사한 어종은 참돔, 감성돔, 참조기, 부세 등이며 이날 현재까지 123만마리, 4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여수시는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을 지난 한파에 따른 저수온으로 보고 있다. 여수시는 "한파 피해를 입은 물고기의 면역력이 약해져 시간이 지나면서 버티지 못하고 집단 폐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두리 양식장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여수지역 바닷가 온도는 7도에서 9도로 측정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여수 연안인 여지만, 가막만에 저수온 경보가 내려졌었다. 여수시는 정확한 폐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물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등에 넘겼

다. 한편 여수에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저수온으로 인해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해 각각 11억8000만원, 36억1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한파는 양식장에서 키우는 물고기 폐죽음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양식어가들에게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양식업 영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름값과 전기료의 폭등으로 양식 어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물고기 폐사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양식 어가의 생산 기반이 날로 취약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어촌 공동체 붕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와 여수시 등은 이번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 규명과 함께 적절한 피해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태풍, 한파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수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어업인들이 이들 재해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문에 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앞서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대화 재개와 휴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키이우=AP/뉴시스

서석대



션키스트, FC 바르셀로나, 서울우유 등...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하면 흔히들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 떠오른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내에 설립된 협동조합만 2만2610개(2022년 3월 기준)에 달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협동조합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수협·신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들 중앙조직 산하 단위조합 수는 약 6300개이고, 개인 조합원 수는 1700만명을 넘어섰다. 중복 가입이 없지는 않으나 전체 국민의 약 40%가 각종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협동조합에 대해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ssociation, ICA)에서는 다음처럼 정의하고 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 1844년 세계 최초의 성공한 영국의 협동조합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협동조합' 이후에 협동조합은 여러나라에 확산돼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은 서유럽에 비해 약 80년 뒤에서 시작했다. 1910년대의 금융조합이나 1920년대의 산업조합은 일제 총독부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통치하기 위한 경제적 보조기관으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이르지 않다. 오히려 1920년대 중반, 우리 한민족에 의해 전개된 조선물산장려운동·외화배척운동·납세거부운동·소작쟁의·민립대학설립운동 등과 함께 일어난 민간협동조합운동이야말로 최초의 협동조합운동이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농민·노동자·지식인·일반 서민 대중이 주축이 됐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자연 소멸되거나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18개 조합선거에 49명, 전남 182개 조합 선거에 381명이 등록했다. 평균 경쟁률은 각각 2.7대 1, 2.1대 1을 기록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는 지역사회와 조합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직선거 못지않게 뜨겁다. 조합원들에게 한정된 선거지만 소중한 표, 공정선거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를 드높여 주길 기원해 본다. 김성수 정치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정치부 (062)510-0461 사회부 (062)510-0340 경제부 (062)510-038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전남취재부 (062)510-0336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